

인문대 소식



발행처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주 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교로 63번길 2(장전동)
발행일 2022년 3월 전 화 051-510-1501
발행인 이종봉 편집인 허순우
디자인/제작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전 화 051-510-1932

학사일정

2022. 3. 2.(수)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1학기 개강
3. 14.(월) ~ 18.(금)	학위논문제출자격 종합시험
3. 31.(목) ~ 4. 6.(수)	2022학년도 1학기 수강취소(W)
4. 6.(수)	2022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1/3선
4. 7.(목)	2021학년도 후기 학위청구 심사용 논문제출
4. 18.(월) ~ 23.(토)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4. 25.(월)	2022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1/2선
5. 12.(목)	2022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2/3선
5. 15.(일)	개교기념일
5. 17.(화) ~ 19.(목)	2022학년도 여름계절수업 수강신청
6. 13.(월) ~ 18.(토)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6. 20.(월)	하키휴가 시작
6. 22.(수) ~ 7. 19.(화)	2022학년도 여름계절수업
7. 8.(금)	2021학년도 후기 학위논문 심사결과보고서 및 최종논문 제출
8. 9.(화) ~ 11.(목)	2022학년도 2학기 1차 수강신청
8. 16.(화) ~ 17.(수)	2022학년도 2학기 2차 수강신청
8. 26.(금)	202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Contents

02 | 미리내 단상 03 | 교수동정 / 인문대 소식 05 | 동문소식 / 학과 · 연구소 소식 11 | 신간소개

2021년도 2학기 전국 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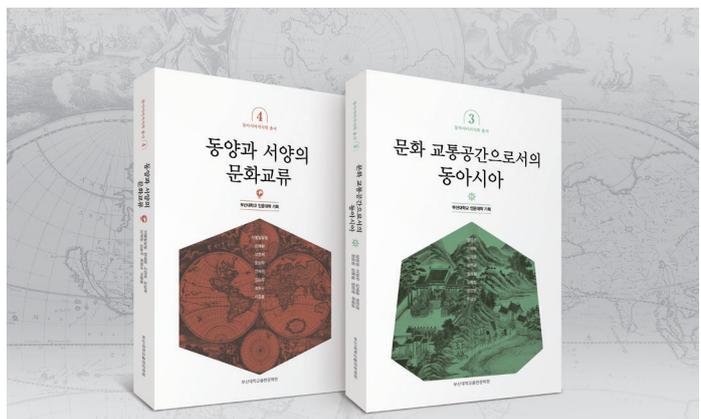


전국 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회장 이종봉 부산대 인문대학장) 정기총회를 10월 30일에서 31일 이틀간 22개 회원대학 인문대학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대학교 본관 교무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정기총회는 이종봉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강재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과 류재한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공동회장의 특강,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의 환영사와 기념사진 촬영, 안건 및 현안 논의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인문 분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재정 지원 확대와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조직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며, 특히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해당 법 개정을 위한 방안 및 전략을 모색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동아시아지식학 총서 3, 4권 발간 - 『문화 교통공간으로서의 동아시아』, 『동양과 서양의 문화교류』

<동아시아지식학 구축 및 학술역량 강화> 사업(국립대학육성사업 지원) 4차 년을 맞이하여 동아시아지식학 총서 3, 4권을 발간하였다. 제 3권 『문화 교통공간으로서의 동아시아』는 전근대 시기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진 문화 교류 현상을 언어, 역사, 문화 등의 관점에서 폭넓게 검토한 것으로, 총 8편의 글을 수록하였다. 제 4권 『동양과 서양의 문화교류』는 전근대 시기 동양과 서양의 문화 교류 양상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것으로 8편의 글로 구성하였다.





미리내골에서 한 학기를 돌아보며

사학과
이승희



부산대학교에서 첫 학기가 끝났다. 인문대 교수연구동에 첫발을 내디뎠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어 있었다. 지난 학기에도 코로나19의 유행은 계속되었다. 일부 강의는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비대면 방식이 주가 되었고, 학과 행사나 인문대 교수 연찬회 등의 공적 모임은 열리지 않았다. 우리 뇌의 회로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기능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어쩔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인 우리는 서로 서로가 맞물려 지낼 수밖에 없지만, 팬데믹 상황으로 인적 교류는 단절되어 활기 넘치고 정신이 없어야 할 새로운 출발은 조용히 시작하였다.

미리내골에 불어오는 요란한 바람 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연구실에 앉아 있노라면 따뜻하다던 부산의 겨울도 녹록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학과를 초월한 인문대 내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돌아보면 이러한 생각은 금세 사라졌다. 줄어든 공적 모임 대신 학기 초부터 여러 인문대 교수님들께서 신임 교원을 위한 식사 자리를 자주 마련해 주셨다. 이종봉 인문대학장님을 비롯해 각 학과의 많은 교수님께서 임용을 축하해주시고, 값진 조언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다. 덕분에 임용 시에 배포 받은 신임교원 길라잡이보다 훨씬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부산대학교 인문대의 장점이 아닐까 한다. 지금도 계속 음으로 양으로 배려와 도움을 주시는 교수님들의 온정 덕분에 부산대학교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앞으로 인문대에 새로 오시는 교수님들을 위해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

중간고사 이후 수강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시한 대면 강의도 활력을 불어넣어 줬다. 교수와 학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팬데믹 이전만큼의 감정 소통은 어려웠지만, 오랜만의 대면 강의는 그 소중함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사실 ZOOM 강의를 통해 모니터 너머이긴 하지만 두 달 동안 얼굴은 마주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강의 초반에는 학생도 나도 서로가 그 어색함을 숨길 수 없었다. 하지만 대면 강의가 거듭될수록 점차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반응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역시 사람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뉘야 정이 쌓인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다. 팬데믹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사학과의 특색인 필드워크 수업, 유적 답사도 재개되어 사료로만 접하는 역사가 아닌 눈으로 보고 발로 밟으며 생각하는 생생한 역사를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부산에 새로 거주를 정한지 반년이 지났다. 낯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은 설렘도 있었지만 긴장도 되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에서 나는 어떠한 선생, 동료의 모습이어야 하는지 고민도 해보았다. 사람을, 인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이 팬데믹에서 어떠한 길을 찾아야 하는지도 생각해보았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만나게 된 것이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한 구절, '상선약수(上善若水)'였다. 내가 머무는 부산대학교에서도 내게 주어진 소임을 묵묵히 다하는 것, 이것이 이방인이었던 나에게 베풀어 준 온정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정년퇴직 교수



철학과
주광순 교수

독일의 쾰른대학교에서 학사를, 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박사학위 논문은 「플라톤의 Charmides 주석」이다. 1997년 9월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서양고·중세철학, 상호문화철학 담당교수로 봉직하면서 박사 3명, 석사 8명을 배출하였고 융복합, 다문화 교육으로 학문 발전에 헌신하였다. 재직기간 동안 철학과장, 인문학 연구소장 및 고전번역학+비교문화학 연구단장 등을 역임하는 등 부산대학교 인문학

연구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서양고·중세철학과 상호문화철학 등 국내외 논문집에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특히 한국상호문화철학회 회장으로서 국내 상호문화철학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활발한 국제 학술교류와 상호문화철학회(GIP) 및 국제상호문화철학학교(IEF) 회원 및 임원 활동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한국의 상호문화철학의 위상을 드높임으로써, 학문적으로 부산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향후 명예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하고 더불어 코로나 펜데믹 시대, 위험사회 속 "상호문화철학"에 대한 심층연구에 매진할 예정이다.

신임 교수



중어중문학과
윤순일 조교수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를 거쳐, 2014년 중국 복단대학(復旦大學)에서 『조당집』 양상동사 및 문법화 연구(《祖堂集》情態動詞及其語法化研究)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졸업 이후 최근까지 고려대 중국학연구소 연구교수, 성균관대 인문학연구원 박사후연구원, 경상대 국제지역연구원 학술연구교수 등으로 재직했다. 주요 논문으로 「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본 중국어 도의류 양상표현의 기원」, 「상고·중고 중국어 시기 조동사 '欲'의 변천」,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 문법기술의 제문제—형태초점 교수법(FonF)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인문대 교수 연구년 및 장기파견

류속영	국어국문학	1년	2022. 3. 1. ~ 2023. 2. 28.
김혜준	중어중문학	1년	2021. 9. 1. ~ 2022. 8. 31.
이은령	불어불문학	1년	2021. 9. 1. ~ 2022. 8. 31.
김성진	한문학	1년	2022. 3. 1. ~ 2023. 2. 28.
윤욱	사학	1년	2021. 9. 1. ~ 2022. 8. 31.
서영건	사학	1년	2022. 3. 1. ~ 2023. 2. 28.

2022학년도 1학기 학과장 명단

2022학년도 제1학기 학과 및 협동과정의 운영을 총괄하게 되는 학과장 및 협동과정 전공주임 교수는 다음과 같다.

국어국문학과장	허순우 교수	2022. 2. 1.
중어중문학과장	남덕현 교수	2019. 9. 1.
일어일문학과장	류민화 교수	2022. 3. 1.
영어영문학과장	안소미 교수	2022. 1. 15.
불어불문학과장	이승이 교수	2022. 3. 1.
독어독문학과장	서은주 교수	2022. 2. 1.
노어노문학과장	이용권 교수	2021. 9. 1.
한문학과장	정출현 교수	2022. 3. 1.
언어정보학과장	권순복 교수	2022. 3. 1.
사학과장	조 원 교수	2022. 2. 1.
철학과장	조창오 교수	2022. 3. 1.
고고학과장	양은경 교수	2022. 3. 1.
인지과학 전공주임	권순복 교수	2021. 3. 1.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전공주임	김태우 교수	2022. 3. 1.

2021학년도 전기 인문대학 박사학위 수여자 명단

- | **이하영** (국어국문학과) [지도교수 : 권경근]
한국어와 일본어의 종결 역양 대조 연구
- | **진신화** (국어국문학과) [지도교수 : 이재봉]
김사량 '연안행(延安行)' 연구
- | **황지경** (중어중문학과) [지도교수 : 신우선]
현대중국어 '(-)个NP' 구문에서의 '(-)个'의 의미·화용 기능 연구
- | **안정환** (영어영문학과) [지도교수 : 이상도]
정서지능과 외국어 불안감 및 언어 학습전략 간 상관성 연구: 직업기술 전문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 | **정인호** (영어영문학과) [지도교수 : 장경철]
체계기능언어학 기반 한영 문학번역 문체 연구
- | **이선현** (영어영문학과) [지도교수 : 김용규]
주디스 버틀러의 문화이론 연구—젠더 수행성에서 프레카리티로
- | **장인권** (영어영문학과) [지도교수 : 이상도]
Acoustic Cue-weighting Strategies for English Vowel Tenseness and Experience-based Talker Adaptation
- | **조윤실** (영어영문학과) [지도교수 : 박기성]
문화 차원 이론에 기반한 한영 다큐멘터리 번역 연구

- | **페이 리화** (영어영문학과) [지도교수 : 박기성]
A Comparative Study of Non-canonical Word Orders between English and Chinese
- | **조원영** (사학과) [지도교수 : 이수훈]
신라 불교 石造浮彫像 연구
- | **김영록** (사학과) [지도교수 : 김동철]
17~18세기 대일무역의 변화와 성격
- | **하여주** (사학과) [지도교수 : 김동철]
조선 후기 유교 젠더 규범과 양반 여성의 대응
- | **김정웅** (사학과) [지도교수 : 이종봉]
조선 초기 지방군 운영 연구
- | **류화정** (한문학과) [지도교수 : 강명관]
麗末鮮初 宋元代 서적의 수용과 문학비평의 변화 양상 연구
- | **전지원** (한문학과) [지도교수 : 강명관]
조선 후기 사족여성 생애자료에 나타난 여성노동 담론
- | **강창규** (한문학과) [지도교수 : 정출헌]
梅月堂 金時翬에 대한 기억서사의 시대적 전개와 그 층위
- | **이동현** (고고학과) [지도교수 : 김두철]
統一新羅土器 研究
- | **최인화** (고고학과) [지도교수 : 양은경]
디지털고고학 활성화 방안 연구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 | **성인경**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 전은주]
한국어 의도 표현의 화용 정보 기술 방식 연구
- | **황수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 강은지]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 | **최정경**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 임주탁]
한국어교원의 상호문화적 교수역량 평가 연구

국립대학육성사업

동아시아지식학 강좌 개최 및 강좌감상문 공모전 시행

동아시아지식학 구축 및 유라시아지식학 기반 확보를 위하여 문학, 문화, 역사, 철학 등을 망라하는 강좌를 총 72회(정기강좌 28, 집중강좌 22, 학술강좌 22) 개최하였다. 강좌에 대한 참여도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제 3회 강좌감상문 공모전도 실시하였다. 응모자 중 대상 2명, 우수상 10명을 선발하여 상장과 더불어 총 상금 200만 원을 수여하였다.

동아시아지식학 자율연구 장학지원 프로그램 시행

학부생, 대학원생의 연구와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총 2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자율연구 장학금 15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장학생은 6개월간 동아시아지식학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고, 2022년 1월 21일(중 화 상회의)에 개최된 결과발표회에서 각자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였다.



제4회 동아시아지식학 차세대 학술포럼 개최

22년 1월 26일, 제 4회 <동아시아지식학 차세대 학술포럼>을 개최하였다. 해당 포럼에서는 총 9명의 차세대 신진연구자들이 지식학 연구소 모임의 성과를 발표하였다. 본 행사를 통해 학문후속세대들의 동아시아 지식학에 관한 다양한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었고, 학제간 융합 연구와 학술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동아시아지식학 영상콘텐츠 공모전 시행

인문대는 2021년 한해동안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동아시아지식학 관련 자유주제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하계방학 3팀, 동계방학 6팀, 총 9팀을 선발하였으며, 각 팀은 영상제작 팀프로젝트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계획·시행하였다. 영상물은 유튜브 채널명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및 인문대학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고고학과 학예연구사 최종합격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졸업생들이 부산광역시 학예연구사(6급 상당)와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사에 최종 합격을 하였다. 한국고고학계를 선도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고고학과는 매년 2~3명의 학예연구사를 지속적으로 배출해 내고 있으며, 고고학·역사학 및 한국의 문화 콘텐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사학과 박정규(02학번)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임용



2021년 10월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 조교수로 새로이 임용된 박정규 교수는 부산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거쳐, 영국의 Swansea University에서 「The Rational Apocalypse of the Latitudinarians in Restoration England」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7~18세기의 잉글랜드 종교 논쟁, 종교개혁사 등 서양근대 사상사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 성과들을 꾸준히 제출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며 학계와 재직 중인 학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학과·연구소 소식

I 국어국문학과

한국문학회 하반기 전국학술대회

한국문학회와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가 주관하는 학술행사가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부산대학교 인문관 시습관에서 개최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준비위원회와 일부 발표자만 현장에서 참석하고, 그 외에는 실시간 화상회의로 함께 하였다. 학술대회의 1부는 자유주제로, 2부는 '환상성과 한국문학의 확장'이라는 기획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국어국문학과 학술제 개최



2021년 12월 3일 열린 학술제에서 국어국문학과 학부 학술 동아리인 고전문학연구회, 발달말연구회, 귀성문학회가 1년 동안 연구하고 창작한 작품을 발표·토론하였고, 졸업한 선배들을 초청해 취업 경험담을 들었다. 코레일에서 근무하는 09학번 윤창원, 3M에서 근무하는 16학번 이우슬이 졸업 후 진로와 취업에 대해 많은 조언을 들려주며 재학생들과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국어국문학과 잡지 <가가가가> 3호 발간



국어국문학과 잡지 동아리에서 2021년 12월 <가가가가> 3호를 발간하였다. 이번 호는 시 작품 및 산문, 맛집 후기, 웹툰 등 인문대 학생들의 창작물로 채워졌으며, 국어국문학과 교수들의 인터뷰가 포함되었다. <가가가가>는 2020년 2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년 겨울 발간되고 있다.

I 중어중문학과

2021학년도 중어중문학과 졸업생 초청 취업 특강 개최

중어중문학과에서는 2021년 11월 22일, 전선임(86, 부산광역시청), 김윤혜(08, 라라관푸드 대표), 박지현(09, 부산광역시청) 세 명의 졸업생을 초청하여 취업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을 통해 4차산업시대에 문과생들의 진로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공무원의 업무와 환경, 준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아울러 창업을 희망하는 재학생들에게는 창업의 과정, 역경 극복 노하우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재학생들이 취업 및 창업 준비를 함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였다.



중국어문캡스톤디자인 전시 및 오픈클래스

중어중문학과에서는 2021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중국어문캡스톤디자인 수업'(지도교수 최진아)의 산출물을 인문대 2층 로비에 전시하고 산출물의 기획안을 오픈클래스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는 총4개의 팀이 참여하였는데 '삼국지연의를 기반으로 한 MBTI 테스트', '중국인물과 고사를 활용한 웰스용품 브랜드 네이밍', '중국 4대미녀 기반의 홈메이드 컵테일 세트', '중국차와 같이 즐기는 언택트 중국여행' 등 중국어문학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결과물을 선보여 인문학의 영역 확장에 대한 실례를 제시하였다.



I 일어일본학과

일본 취업 설명회



2021년 11월 5일, 일본 아마토 운수에서 근무하고 있는 07학번 졸업생을 초청하여 일본 취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일본 기업 취업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막막했던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경로를 안내하고, 장기간의 해외 체류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재학생들에게는 실제 경험담을 통해 간접체험을 하며 두려움을 해소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일본 기업 취업 컨설팅

2021년 11월 12일과 19일, 2회에 걸쳐 일본 기업 취업에 관심 있는 재학생 5명을 대상으로 소규모 '일본 기업 면접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실제 오하요일본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가 자기소개서 및 지원 서류 작성 요령을 지도하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프로그램이었다.



I 영어영문학과

2021년 영어영문학과 맞춤형 취업 특강



영어영문학과는 김수현(13학번 졸업생), 김진영(11학번 졸업생), 장한미(12학번 졸업생), 정다솜(13학번 졸업생)을 초청하여 2021년 9월 16일-17일 『2021년 영어영문학과 맞춤형 취업 특강』을 진행했다.

2021학년도 영문인의밤

영어영문학과는 2021년 11월 25일 인문관 412호에서 『영문인의 밤』을 개최했다.



영어영문학과 교원임용시험 대비 특강

영어영문학과는 정관중학교 광명하 교사(14학번 졸업생)를 초청하여 2022년 1월 3일 『교직이수예정자의 진로계획과 교원임용시험 조언』 특강을 진행했다.



About 임용

교시	1교시 : 교육학	2교시 : 전문 A	3교시 : 전문 B
출제 분야	교육학	교과교육학(20~35%) 교과내용학(65~75%)	
시험 시간	40분	40분	40분
응답 방법	순응형	기입형 시용형 혼합	기입형 시용형 혼합
응답수	1명당	각각 4문항 4문항	각각 2문항 4문항
응답당 배점	20점	각각 2점 4점	각각 2점 4점
교시별 배점	20점	40점	40점

I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졸업생 초청 취업설명회 개최

독어독문학과는 2021년 11월 3일 학과 맞춤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졸업생 초청 취업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초청강사로 박영훈 (11학번, (주)빙그레 사원)과 배리원 (12학번, BGF 리테일 사원)이 참여하였으며, 취업 준비에 필요한 기본 정보와 본인 소속 기업의 최신 취업정보, 그리고 취업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 본인만의 노하우를 학과후배들에게 전해주었다.



독어독문학과 크리스마스 파티 개최



독어독문학과는 2021년 12월 23일 학과 소속 재학생 및 교수진이 함께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크리스마스 파티 행사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행사하였다. 독일의 크리스마스 문화와 관련된 퀴즈, 선물 교환, 내년도 학생회 소개 등 학과 구성원 간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1 노어노문학과

Q-1 특성화교육프로그램 <러시아문화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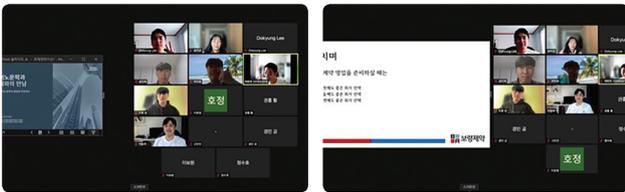


2021년 11월 17일, 코로나19로 인한 수동적인 수업을 보완하고 러시아 현지 연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1,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러시아문화탐방에 대한 Q-1 특성화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어학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 적응, 생활!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학,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여행> 총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2021 노어노문학과 졸업 선배 진로·취업 특강

2021년 11월 27일 졸업생 11학번 이승준(은행원), 11학번 박동희(회사원)을 초빙하여 온라인으로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진로·취업 특강에 학부생들 15명이 참석하였다. 취업현장에 기반한 양질의 풍부한 정보들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2021 노어노문학과 선후배 멘토링

2021년 11월 10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노어노문학과 전공분야 진로탐색 역량강화를 위한 선후배 멘토링이 진행되었다. 방역 지침을 지켜 소그룹 단위로 다양한 주제하에 진행된 동 행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의도치 않게 소외되어 전공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20학번, 21학번 재학생들을 위한 선배들과 교수님들의 멘토링 시간이었다. 자신의 전공분야 진로 탐색을 통해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장단기 인생 설계에 도움을 주는 컨설팅 시간을 가졌는데 재학생들의 학과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학업 성취도 및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러시아 문학 온라인 독서 모임

2021년 9월 30일 진행된 <러시아문학 온라인 독서모임>에 러시아어를 배우는 학생들과 러시아 문학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참석하여 러시아 작가 A푸쉬킨의 문학과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의 소설 '스페이드의 여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스토예프스키 탄생 200주년 기념 강연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2021년 11월 22일 허선화 교수님의 초청 강연 '카라마조프 형제들과 생태주의'를 진행했다. 온라인으로 실시한 본 행사에는 노어노문학 전공생, 일반인 등 23명이 참석하였으며, 도스토예프스키의 생애와 그의 소설 '카라마조프 형제들'에 담긴 생태주의적 면면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펜글씨 클래스



도스토예프스키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2021년 11월 12일 펜글씨 클래스를 개최하였다. 러시아어 알파벳 필기체 쓰기, 도스토예프스키 글씨체 따라 쓰기 등, 비전공자들도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클래스였다.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1 언어정보학과

2021학년도 언어정보학과 오리엔테이션 개최

2021년 9월 3일 2021학년도 언어정보학과 오리엔테이션을 비대면으로 개최하였다. 1~2학년 학생들에게 학과 교육과정 및 각종 학교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면하지 못하는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말미 교수님들께서 직접 추천을 하여 참석한 학생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등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I 한문학과

제23회 효원성년제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했는데, 2021년에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전환 방침에 따라 학생의 날인 2021년 11월 3일에 오프라인으로 효원성년제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2021 추계학술답사(2021년 11월~12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중단되었던 추계학술답사를 올해는 이전과는 방식을 달리하여 재개하였다. 10개의 조로 나눠 경북 경주 일대로 조별 답사를 다녀왔는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2021-2 석사 학위청구논문 발표회

석사 학위청구논문 1차 심사인 예비발표회를 2021.11.18.(목)에 20명 내외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인문관 412호에서 대면으로 진행하였다.



한문학과 BK FOUR 학술세미나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BK FOUR 한문고전 번역 기반 동아시아_로컬지식학 전문가 교육연구팀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국내외 동아시아학/고전번역학/로컬지식학 전문가를 모시고 총 6차례의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하여 동아시아학의 시야에서 고전번역학을 기반으로 로컬지식학을 구현하여, 지역고전의 학문적 모색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II 사학과

제4회 피란수도 부산 논문공모전 입상

- 전문연구자분야 장려- 사학과 박사과정 박경연
- 대학생분야 최우수- 사학과 17학번 최진우, 강다영, 이아연

부산시는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진작시키고 '피란수도 부산'을 연구하는 미래 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해 「제4회 피란수도 부산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에서 사학과 박사과정 박경연은 전문연구자분야에서 「한국전쟁기 미국 천주교의 한국인식과 구호활동」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입상(장려)하였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를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 천주교가 반공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진행한 구호활동에 이 논문은 주목하였다. 특히 피란수도 부산이라는 지역 속에서 미국 천주교의 구호활동 기반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사학과 17학번 최진우, 강다영, 이아연은 대학생분야에서 「피란수도 부산, 생계를 위한 여성 상인의 길」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입상(최우수)하였다. 해당 논문은 구술자료를 활용하여 피란수도 부산에서 이루어진 여성의 상업활동을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1950년대 종사자 수가 급증한 상업 부분에서, 특히 '자갈치 아지매'라는 부산 여성의 상징적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고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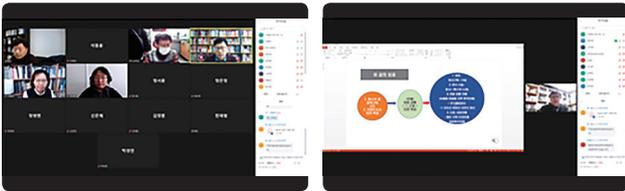
제4회 중한 국제인문학술 심포지움 개최

2021년 12월 18일(토)에 인문대학과 교류 협정을 체결한 정주대학 역사학원과 사학도가 네 번째 국제인문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초기 中國과 史前 실크로드」, 「古代 韓半島의 것갈(魚肉醬)의出現과 普及: 「齊民要術」과 관련하여」, 「周仇와 그의 경제활동 初探」, 「明理守中: 中國문화관의 핵심」, 「清代 초기 圈地 정책 기원에 대한 연구」, 「河堤謁者和 漢代 황하 국가 통치 체제의 구축」, 「근대 日本軍 憲兵의 방첩·첩보 활동과 밀정 운용」의 일곱 가지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동서양과 동북아시아 내 교류(식문화 전달 양상 등), 권지 정책, 일본군 헌병 첩보 활동 등 지금까지 살펴보지 못한 주제들이 발표되어 많은 연구자들에게 학문적인 흥미를 돋우고, 연구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2022년 상반기 효원사학회 학술발표회 개최

2022년 1월 21일에 효원사학회 학술발표회가 비대면으로 개최되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종교나 신앙의 양상, 공동체와 연대의 형태가 역사 속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점을 생각해보면서, 인간과 삶, 개인과 공동체의 측면에서 신앙과 의례의 의미를 찾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였다. “고려 다경의 지역의례”, “고려시대 報祀 祭行과 그 의미”, “조선 후기 반역자들의 의례”, “근현대 위생담론과 판수의 치병의례”라는 4개 주제로 다양한 전공 분야의 연구자들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였다.



맞춤형 취업특강 2회 실시(2022년 1월 17~18일, 27일)

2022년 1월 17~18일 양일간 전문 컨설턴트(트레저잡컴퍼니 대표 문소윤)를 초빙하여 비대면 취업 특강을 실시하였다. 17일에는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18일에는 면접 특강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바라는 직무에 알맞게 면접관을 대하는 방법이나 대답을 하는 데 필요한 스킬 등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실제로 연습하는 시간까지 가졌다. 이어 1월 27일에는 전문 컨설턴트(사학과 박사과정 이하나)를 초빙하여, 공기업 채용 프로세스와 NCS 필기시험 대비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강연자는 의사소통능력 문제 유형 및 풀이 예시를 소개하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를 진행하였다. 취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의 취업 역량 향상에 기여했으리라 생각된다.



1 철학과

2021학년도 철학과 레포트 경진대회를 위한 “여는 강의” 개최



2021년 8월 9일(월)에서 9월 5일(일)까지 “코로나 시대의 철학”라는 주제로 자유주제형식의 레포트 경진 대회 공모를 했다. 공모 접수 이전에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여는 강의」가 “코로나시대의 공포와 예술”(박요한 박사과정), “코로나시대의 인간관계”(양창아 강사), “코로나시대의 자유”(조창오 교수)라는 소주제로 8월 9일(월)~11일(수) 오후 3시에 대면/비대면 병행으로 진행되었다. 레포트 경진대회에서 김민지(최우수상), 김민진(우수상) 외 3명에게 시상품이 전달되었고, 2021년 영남권 철학과 학부 연합 논문발표회에서는 김민진과 김민지 학생이 부산대 철학과 대표로 논문 및 에세이를 발표하였다. 코로나 시대 속 철학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며,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2021년 8월 9일(월)에서 9월 5일(일)까지 “코로나 시대의 철학”이라는 주제로 자유주제형식의 레포트 경진 대회 공모를 했다. 공모 접수 이전에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여는 강의」가 “코로나시대의 공포와 예술”(박요한 박사과정), “코로나시대의 인간관계”(양창아 강사), “코로나시대의 자유”(조창오 교수)라는 소주제로 8월 9일(월)~11일(수) 오후 3시에 대면/비대면 병행으로 진행되었다. 레포트 경진대회에서 김민지(최우수상), 김민진(우수상) 외 3명에게 시상품이 전달되었고, 2021년 영남권 철학과 학부 연합 논문발표회에서는 김민진과 김민지 학생이 부산대 철학과 대표로 논문 및 에세이를 발표하였다. 코로나 시대 속 철학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며,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철학과 릴레이 선배와의 인터뷰 및 AI 면접 특강, 모의 면접 경진대회

철학과에서는 철학과 취업주간인 2021년 11월 2일(화)~11월 5일(금)에 “AI 면접 대비 특강” 및 “취업분야별 선배와의 인터뷰 모임”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대면강의로 진행했다. 먼저 AI 면접 전문가 김재준 강사를 초빙하여 AI 면접 뿐만 아니라, 심층 토론 면접 준비와 팁을 들었다. 다양한 분야(대기업, 교직, 로스쿨, 공기업)에 취업한 선배들과 함께한 “선배와의 인터뷰 만남”에서는 사전 인터뷰 질문 내용을 강의실에서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질의응답을 받았다. 면접 특강과 선배와의 인터뷰 만남을 통해서, 멀게만 느껴졌던 취업 성공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만의 취업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다.

철학과 취업주간 이후에는 취업 실전 프로그램으로서 유형별(심층, 토론) 모의면접 경진대회 신청 접수가 이어졌고, 11월 19일에는 모의 면접 경진대회가 시행되었다. 학생들은 유형별 모의면접을 통해서 자신감과 면접 현장의 생생함을 미리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취업전략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모의면접경진대회를 통해 최우수상(홍유진) (30만원)외 4명에게 시상 및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2021년 한국상호문화철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및 주광순 교수 퇴임 기념식



2021년 11월 26일에 철학과 공동 주관으로 2021 한국상호문화철학회 추계발표회(주제: 근대성과 상호문화성)가 개최되었다. 발표회에서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첨예하게 드러나게 된 자문화중심주의, 인종차별문제, 국가패권주의 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제간 교류를 통한 상호문화성의 강화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정치, 경제적인 대립 속에서 서로에 대한 정신적 이해와 존중,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성찰이 필수적인 조건임을 생각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한편 추계발표회는 한국상호문화철학회 회장인 주광순 교수님의 퇴임식도 겸하였는데, 코로나 상황에도 많은 교수, 강사, 제자들이 함께하여, 상호문화 철학에 대한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퇴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학년도 철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2022년 2월 11일 비대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되었다. 학과 소개와 함께, 철학과 신입생의 대학 수강 신청 방법 안내, 대학생활 및 기본적인 학사관리를 위한 정보 등이 전달되었다. 비대면이지만 신입생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22학번 동기간 얼굴을 익히며 대학생활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I 고고학과

부산대학교 고고학과(재)울산문화재연구원 공동발굴조사



2021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고고학과와 (재)울산문화재연구원이 함께 사천 녹도 유적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을 발굴조사하였다. 사천 녹도유적은 한반도 남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기원 전후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제작되었거나 영향을 받은 외래계 유물들이 다수 출토되어 고대 동아시아 교역의 거점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는 곳이다. 특히 본 실습에서는 실습생들이 담당한 트렌치와 유구에 대해 직접 브리핑 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등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발굴을 실시하였다.



고고학과 4단계 BK21 사업팀 '겨울 고고학 학교' 전문가 초청 특별 강연회 개최



지난 2020년 2학기부터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에 선정되어 미래 고고학을 선도할 통섭형 고고학자를 양성하고 있는 「동아시아 SAP 융합 인재 양성 사업팀(팀장 이창희 교수)」에서는 학기 중과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교육연구팀 기획운영프로그램, 대학원생 주도 프로젝트, 대중고고학 실천 등 다양한 사업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겨울방학 기간을 맞이하여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6차례의 "겨울 고고학 학교: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Ⅰ·Ⅱ·Ⅲ)"을 진행하였다.

I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연구소 2022년 국제학술대회

연 제 디아스포라, 횡단하는 정체성
일 시 2022년 1월 27일(목) 11:00 - 19:00
장 소 인문대교수연구동 209호, 온라인 Zoom

서경식 교수	일본 도쿄게이샤 대학교	팬데믹과 디아스포라
이재봉 교수	부산대학교	재일조선인 문학과 비-존재의 존재론 -후카자와 우시오의 『버젓한 아버지에게』를 중심으로-
김성화 강사	중국 남동대학교	중국항일근거지 문예와 조선문학의 만남 -1945년 김사량의 문학적 실천을 중심으로-
고혜림 강사	부산대학교	화인 디아스포라 문학을 통한 정체성 논의
최덕호 조교수	영국 셰필드대학교	수차례의 월경과 식민주의 냉전, 폭력 : 제2차 세계대전 후 "시베리아"에 억류된 어느 조선인의 체험을 통하여

인문학연구소 해외학자 초청특강

- 연제: 일본에서 근대 이후의 언어 변화
- 일시: 2021년 12월 23일(목) 15:00 - 18:00
- 장소: 인문대교수연구동 209호, 온라인Zoom

서경식 교수	일본 도쿄게이샤 대학교	디아스포라와 언어
--------	--------------	-----------

인문학연구소 연속기획특강 54강

- 연제: 일본에서 근대 이후의 언어 변화
- 일시: 2021년 12월 20일(월) 10:30 - 14:00
- 장소: 인문대교수연구동 212호

형진의 교수	한남대학교	일본에서 근대 이후의 언어 변화
--------	-------	-------------------

인문학연구소 2021년 국내학술대회

- 연제: 기술과 사회, 그리고 철학적 반성
- 일시: 2021년 12월 17일(목) 14:00
- 장소: 인문대교수연구동 209호, 온라인Zoom

송성수 교수	부산대학교	인공지능은 인간의 일자리를 얼마나 대체할 것인가: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과 노동에 관한 이론
김혜민 박사과정	부산대학교	시공동의 기술철학에서 나타난 기술적 양상에 관한 연구
김문정 부교수	동아대학교	메타버스에서의 의료와 윤리

인문학연구소 2021년 세미나

연 제 우리 시대의 비평/이론 읽기
 일 시 2021년 9월 24일, 10월 22일, 11월 26일, 12월 22일
 장 소 온라인Zoom

이명호 교수	경희대학교	성차이론과 생명윤리, 그리고 『식물의 사유』
최유미 박사	수유너머 104	해러웨이와 『공-산의 사유』
김용규 교수	부산대학교	세계문학과 『멀리서 읽기』
이현석 명예교수	경성대학교	탈자본주의와 가치의 문제

점필재연구소

점필재연구소장 부임

2021년 9월 13일자로 신상필 교수(점필재연구소 부교수)가 점필재 연구소장으로 부임하였다.

〈2021년 점필재인문아카데미〉 행사 개최

일시	장소	행사명
2021.10.28. ~2021.11.11.	예림서원	근대 전환기 경남 유학의 자존심, 소율 노상직(1강~12강)



2021년 점필재 학술심포지엄 〈점필재 선생과 한국 차(茶)문화 전통〉 개최

일시	장소	행사명
2021.12.02.	나노과학 기술대학 시청각실	2021년 점필재 학술심포지엄 〈점필재 선생과 한국 차(茶)문화 전통〉



제1회 한국계몽주의특강 〈근대 계몽기의 공부거리〉 개최



일 시 2021.12.02.
 장 소 인덕관 소회의실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인문학 강좌-세대 이음 인문학 강좌 개최

노인 자서전 쓰기 2021.08.25.~2021.11.24.
 기억을 잇다 1 2021.09.10.~2021.10.15.
 대천일기 읽기 1 2021.10.2.~2021.10.23.

[2021년 제16회 인문주간] 코로나 시대, 인문학의 길-일상의 회복 시행

행사기간 2021.10.25.~2021.10.31.
 행사장소 북구 일대 및 비대면 온라인
 주 최 한국연구재단
 주 관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산 북구청
 후 원 부산대 사학과
 행사내용 길 위의 인문학, 세대공감 기획전시 및 체험, 영화 상영회 및 관객과의 대화, 학술회의, 초청강연회로 구성



세대공감 기획전시 및 체험행사



초청강연회
 강연자: 김상욱 경희대 교수



영화상영회 및 관객과의 대화-영화: 자서전(감독: 오민욱)

신간소개



가짜 남편 만들기

강명관 | 푸른역사 | 2021.09.

16세기 프랑스를 떠들썩하게 만든 '마르탱 게르 사건'이 있다. 8년간 가출했다 돌아온 남편이 아내와 가족, 주변 사람들을 속여오다 진짜 남편의 등장하면서 재판으로 이어진 이 사건은 수백 년 동안 영화, 소설, 오페라 등으로 다양하게 변주되어왔다. 이 사건(재판)의 핵심은 천재적 사기꾼의 행각이지만 마르탱의 아내 베르트랑드가 '먼저 돌아온 남편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하는 점도 색다른 독법을 제시한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 조선에서도 '가짜 남편' 사건이 있었다. 대구 사족 유언이 1558년 가출하면서 벌어지는 이 사건 역시 6명의 무고한 죽음을 낳으면서 당대의 화제가 되었다. 이를 다룬 이항복의 〈유언전〉이 국문학계에서 나름 관심거리가 되어, 대학입시용 논술자료로도 활용될 정도이다. 이 책 『가짜 남편 만들기, 1564년 백씨 부인의 생존전략』은 꼼꼼한 사료 읽기를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을 추적하면서 당대의 기록과 제도 대신 인간의 욕망을 축으로 문학이 '은폐'한 역사를 보여준다.



박은식: '양지'로 근대를 꿰뚫다
박정심 | 학고방 | 2021.12.

양지로써 근대를 통찰한 사상가 박은식의 사상이 갖는 현재적 의미에 대해 살펴본 책이다. 박은식은 양지를 통해, 한국적 근대를 성찰했을 뿐만 아니라, 동양주의 및 유럽중심주의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비판할 수 있었으며 인류가 지향해야 할 목표로서 인도주의적 대동사상을 제시하였다. 진아가 되어 망국이란 역사적 고통을 해결하고 독립하는 것이 곧 세계적으로는 인도주의를 실현해가는 하나의 과정이 된다. 그야말로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도외시하지 않으면서도 보편적 이념을 구현하는 길이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근대 역사를 반추하면서 이 시대의 '문명의 문명다움'을 되물을 수 있는 것이다.



기술철학 입문
알프레트 노르트만(지은이), 조창오(옮긴이) | 서광사 | 2021.12.

지식 전달과 비판적 분석을 조합하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창출하고 있는 독일 유니우스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입문서 시리즈 중의 한 권이다. 현재의 기술철학은 과학을 전공한 소수의 연구자가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기원에서 보자면 기술철학은 고전 문헌 학자로부터 시작되었고, 다양한 철학적 전통을 자체 내에 포함하고 있다. 현재의 전문적인 기술철학은 이러한 기술철학의 전통을 다소간 간과하면서, 너무 전문적인 내용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철학으로서의 기술철학을 소개하면서도 기술철학의 현재적 담론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균형 있는 기술철학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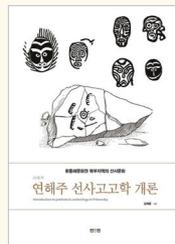
기술철학 개요
에른스트 카프(지은이), 조창오(옮긴이) | 그린비 | 2021.12.

19세기 독일의 기술철학자 에른스트 카프의 저작으로, '기술철학'이라는 표현을 최초로 사용했으며 기술을 체계적인 철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부상시킴으로써 초기 기술철학을 성립시킨 역사적인 고전이자 한국어 최초 번역판이다. 카프 이전까지 기술은 단지 제품 생산의 관점에서 도구적으로 대상화되었다. 그러나 카프는 인간의 신체 기관이 기술 제작의 원상 또는 모델이 된다는 '기관투사' 이론을 통해 기술적 대상은 인간 신체의 복제이며, 따라서 기술이란 인간의 절대적인 자기생산이자 자기 표현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술에 대한 문화적 관점을 통해 그동안 문화를 위한 보조적 역할에 머물렀던 기술은 인간의 자기인식, 자기의식을 위한 통로로 재인식된다. 기술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학적인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철학적 화두를 던지는 책이다.



음선정요 역주
홀시혜(지은이), 최덕경(옮긴이) | 세창출판사 | 2021.12.

원 천력天曆 3년(1330)에 황제의 양생과 보양을 위해 간행된 현존하는 중국 최초의 영양학 전문서적이다. 본서를 통해 원대의 궁정요리는 물론이고 민간의 생활습속이나 식생활을 이해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전승된 식료법을 통해 어떻게 건강을 지켜 왔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 책은 인근 국가로 전파되면서 각국의 식품조리와 식품의학을 저술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해주 선사고고학 개론
김재윤 | 진인진 | 2021. 11.

한반도 동해안과 러시아 연해주를 잇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지역을 '환동해문화권'으로 설정하여, 시호테알린산맥과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아무르강 하류에서 경상남도 남강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의 선사문화 전개 양상을 고고학 연구를 통해 규명한 연구서이다. 9000년 전을 환동해문화권 북부지역 형성 시기로 상정하고, 1900년 전 불제문화 직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하여 구석기-신석기-청동기-철기 시대로 구분하여 각 시대별로 연구성과와 편년 등을 제시하고, 해당 시대의 유적과 유물의 사례를 통해 해당지역 선사문화의 전개과정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완역 한양보, 완역 소년한반도, 완역 서우 1~3

권정원, 신재식, 신지연, 최진호, 장미나, 손성준, 유석환, 임상석, 전민경 역 | 보고사 | 2021



태계집 1~2, 교감표점 태계집, 소산집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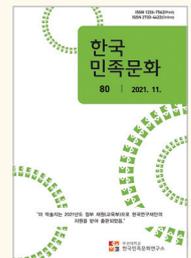
김홍영, 남춘우, 정석태 역 | 도서출판 점필재 | 2021



코기토 95호 발간
2021.10.



로컬리티 인문학 26호 발간
2021. 10.



한국민족문화 80집 발간
2021. 11.